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2월 17일(주일) 제1471호



사진은 지난해 미디어사역본부에서 진행한 '크리스마스 미디어 파사드'.

23~24일 성탄주일예배, 25일 성탄가정예배 24~25일 성탄절 콘서트, 크리스마스 블레싱 31일까지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온라인 전시회'

온 누리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눈다. 온누리교회 성탄주일예배는 12월 23일(토)과 24일(일) 드린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하고 기뻐한다. 12월 25일(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성탄가정예배'를 드린다. 12월 23~24일 주일예배에서 나눠주는 '성탄가정예배 순서지'와 도움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12월 24일(일)과 25일(월)에는 '성탄절 콘서트'가 막 오른다. 12월 24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가 열린다. 12월 25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가 진행된다. '성탄절 콘서트'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가 설교한다. 손범수

아나운서, 진양혜 아나운서, 영화배우 강석우가 사회를 보고, 소프라노 김영미, 색소폰 연주자 이광재, 가수 범키, 이한진브라더스 밴드, 개구무먼 조혜련, 배우 최강희, CRUX, 더블레싱, 하다쉬뮤직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뮤지컬 배우와 함께하는 '교역자 뮤지컬'도 이어진다.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에 전도대상자를 초대하고 싶은 성도들은 12월 18일(월)까지 후보 간지 신청서 또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The gift'에서 하면 된다. '성도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에는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선착순 입장한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에 꼭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12월 25일(월)까지 이어진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104개 팀이 온 누리의 이웃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전한다. 전국 지역교회, 쪽방촌, 다문화센터 등지를 방문해서 성탄예배, 어린이사역, 전도사역, 문화공연, 선물 나눔, 블레싱 등을 할 예정이다.

12월 20일(수)부터 31일(일)까지는 미디어 사역본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온라인 전시회'가 이어진다.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온라인 전시회'에 소개할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12월 20일(수)까지 성탄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 카드'를 제작해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온누리의크리스마스2023)나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우편(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11 온누리교회, 본관 2층 IT지원팀 이경희)이나 동빙고 근린공원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 옆 '빨간 우체통'에 작품을 넣어도 된다. 작품을 제출할 때는 소속 캠퍼스, 공동체, 이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3 엔젤트리 사연 93% 연결

2023 엔젤트리 사연 93%가 연결됐다. 올해 엔젤트리에서는 이웃 7,500여 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2023 엔젤트리 사연은 총 7,492건 접수됐다. 현재까지 93%(6,982건) 사연이 연결됐고, 사연 510건이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12월 14일 기준).

아직 엔젤트리 선물을 발송하지 않은 성도들은 대상자가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을 받도록 서둘러야 한다. 엔젤트리 선물은 가능한 '엔젤트리' 이름과 주소, 연락처로 보내는 게 좋다. 선물 발송을 완료한 성도들은 사회선교본부 엔젤폰(010-6442-0191)으로 선물 발송을 완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꼭 보내야 한다. 엔젤트리 선물은 5만 원 이하(꽃,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 홍하영 기자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종료

이웃 1천 75가구에 생필품 전달

2023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이 그 막을 내렸다. 올해 '사랑앓나눔'에서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소속 청년 956명과 서울 시내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교회 등 13개 기관이 연계해서 지난 12월 2일(토), 9일(토), 16일(토) 이웃 1천 75가구에 생필품, 쌀, 김치 등을 전달했다.

박명수 형제(하늘대학부)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이 세상 모든 어르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망했다.

/ 김다예 기자 daa2@onnuri.org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 ▶ 온누리교회: 온라인(www.onnuri.org), 전화(02-3215-3253, 3264, 3618, 3265), 서빙고 재정팀, 양재목회지원실
- ▶ CGN: 온라인(www.cgntv.net), 국제청 홈택스, 전화(02-769-2243)
- ▶ NGO 더멋진세상: 온라인(www.abetterworld.or.kr), 국제청 홈택스, 전화(02-2271-2248)

홈택스 전자기부금 신청

- ▶ 단체명: 온누리교회, 고유번호: 106-89-00598, 기부금법령: 종교단체 기부금(41번)
- ▶ 마이홈택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 기부금공제요청 금액(온누리교회 현금 1년 총액) 입력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시 30분 각 캠퍼스 본당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지난 12월 11일(월)부터 오는 1월 20일(토)까지 이어진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된다.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주별 주제를 따라 말

씀을 선포한다. 12월 18~23일 '그리스도와 담대히 동행함', 12월 25~30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세상을) 거절함', 1월 1~6일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함', 1월 8~13일 '그리스도께 담대히 순종함', 1월 15~20일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함'이다. 이재훈 위임목사,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박종길 목사, 강부호 목사 등이 설교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는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유튜브, CGN Live)로 참여하면 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의 취지는 각 성도가 2024년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다. 더불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의 기도 역량을 강화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 김현준 기자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최근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주는 드라마와 영화도 있지만,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화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어서 심각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성경이야기로 만든 영화들이 있는데, 삼손과 들릴라, 다윗과 밧세바 같은 남녀 관계 혹은 잘못된 관계의 내용들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중에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 다. 삼손과 다윗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은 기대하지만, 유혹을 이기는 장면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문란함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그 문화의 흐름과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그 문명의 몰락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공통점은 성적인 타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작가 필립 안시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성과 문화의 발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86개 사회집단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성적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회의 발전과 우월성은 성적인 순결을 추구할 때 발전했고, 그렇지 않았을 때 퇴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 시대의 도덕성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성적 윤리를 낮춰서 도덕불감증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사도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신학자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도덕적 기준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백록>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한 여인과 오랫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도덕적 수준에 비추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절대 윤리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시 사회의 도덕 수준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윤리학자들은 도리어 어거스틴을 공격합니다. “그 여인과 관계를 청산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이 시대 기준으로 보면 어거스틴이 지나치게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이유는 성적인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고 순결한 남자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했는지라도 유혹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영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했고, 유혹에는 강했으며, 감옥에서도 신실했습니다. 당시 요셉 주변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도 없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꿈을 통한 계시, 어린 시절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과 나누었던 친밀한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곧고, 정직하고, 순결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귀한 믿음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들을 따라 요셉이 도단까지 따라갔습니다.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찾지 못하고,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갔습니다.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갔습니다. 형들에게 살해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려 간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시작한 종의 생활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요셉은 형통하게 났습니 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 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2~3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와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에 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5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 더 나아가 그 집 전체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고, 때로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함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거룩과 순결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

까요? 물론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언약을 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독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신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요셉이 종으로 일할 때나 죄수로 일할 때 하나님이 왜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거룩과 순결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음모를 꾸밉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모든 종을 내보내고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강압적으로 요셉을 자신에게 이끌려고 했지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어떻게 강해졌는지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눈짓으로 시작합니다. 여성들의 눈화장이 이집트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여인들이 세계 최초로 눈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눈을 주목하기 위해 화려한 치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날마다 요구하고, 나중에는 함정까지 팠습니다. 자신과 둘만 있을 수 있는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단호해졌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절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도망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황 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이 20대 청년 아니겠습니까? 또한 외로운 상황 아닙니까? 홀로 팔려와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성적 유혹을 받기 쉬운 상태입니다. 외로움이 인간의 영혼을 잠식할 때 성적인 타락의 썰물이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든 없든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 요셉은 종입니다. 그에게 당시 왕의 친위대장 권세를 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는 것은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거역하기 어려운 신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날로 말하면 강압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규정됩니다. 권위자를 거부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쉽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요셉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요셉이 가능했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시대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거절한 세 가지 이유

요셉이 외로운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8-9절).

첫째, 주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와 충성심 때문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요구는 자신을 믿고 맡긴 주인에 대한 예의도,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에 대한 성실함과 책임감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요셉이 “제가 어떻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홀로 있는 것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홀로 있어도 그 고독이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창의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부정적 외로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합니다. 대부분 죄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성적 타락이 고통스러울 때보다 안락할 때,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요셉을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꿈이 무엇입니까? 가족에게조차 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 들어 쓰시는 통로가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자신의 삶을 낮추고, 더러움에 자신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높은 꿈을 가진 사람은 낮은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룩한 꿈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락한 문화에 자신을 물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면 결코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수준으로 내어 주지 않습니다. 유혹에 꺾이지 않는 꿈, 하나님의 꿈이 그의 삶을 붙잡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타락에 자신을 내어 준다면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살전 4:3-5).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거룩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적 타락에 빠질 때 그 파괴력이

매우 큼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죄를 양산하며, 사회를 파괴합니다. 부정한 관계로 인하여 생긴 아이들이 수없이 낙태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입니다. 가장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잠언>에서는 ‘불’에 비유했습니다.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데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녀를 건드리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잠 6:27-29).

불을 품으면 그 화상이 치명적이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는 것은 불속에 뛰어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을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 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요일 1:9).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셉은 거룩과 순결을 지켰지만, 그로 인해 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거룩과 순결을 지킨 대가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만일 요셉이 유혹에 무너졌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데이비드 시몬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에 굴복했다면 그는 더 나쁘고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순결을 더럽힌 행위의 대가는 자유

를 상실하고 더 나쁜 얽매임, 곧 욕망의 사슬과 남의 눈을 피해 다니는 은밀함의 굴레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꿈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잃었을 것이다.”

요셉이 거룩과 순결의 대가로 육신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더 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유혹에 굴복했다면 그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유혹에 꿈을 내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은 “하나님, 제가 요셉처럼 순결하게 하옵소서”, 여자들은 “내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갈수록 타락하고 음란해지는 이 시대 속에
거룩하고 순결한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하
옵소서.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타락한 인생 되지 않
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사회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

스콧 알렌(Scott D. Allen)은 지역사회 개발과 빈곤 퇴치 및 정의 구현에 평생을 헌신해 온 기독교 운동가이다. 최근 저서 〈사회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의 서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최근 들어 어떤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복음주의 교회의 중심부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이것은 지지자들에게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고 불리며, ‘다양성(Diversity)’, ‘평등(Equality)’, ‘포용(Inclusion)’에 관한 책임과 연관되어 있다. 앞글자를 따서 ‘DEI’라고도 불리며, 최근 미국의 기업, 학교, 교회 등의 채용 및 인사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2022 교육과정개편’ 내용과 최근 ‘국회발의 중인 법안’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교육기관 ‘콜슨’의 대표 존 스톤스트리트는 그들이 사용하는 정의, 다양성, 평등, 포용의 뜻이 성경의 가르침과 그 의미가 다름을 말한다. 요즘과 같은 기독교의 기준들이 세상의 주류문화에서 밀려나고 있는 탈기독교(post-christian) 시대에는 세상의 위세를 입은 세속적 세계관이 복음주의 교회에도 깊이 침투해서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경우가 많다. 성경적 정의의 뜻을 혼란스럽게 하는 근래의 사상들을 ‘사회정의’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사랑의 실체이시며,
그분이 행하신바 즉, 사랑 가득한 공의가
균형 있고, 순서에 맞게 행해지는 게
바로 성경적 정의이다.”

칸트의 계몽주의 이후 니체-마르크스-그람시-푸코 같은 무신론 철학자와 운동가들의 생각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게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이다. 해체주의는 기존의 주류문화가 주장하던 단어의 뜻 해체를 시작으로, 기존 질서를 비판하며, 약자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보호하는 것을 정의라 규정한다. ‘비판이론(critical theory)’, ‘문화막시즘(cultural Marxism)’,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교차성 이론(intersectionality)’ 등도 ‘사회정의의 이념’으로 포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정의는 마르크스의 이론과 연결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을 통해 생산된 이익을 자본가나 지주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약자인 노동자와 농민이 빈궁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약자들이 혁명으로 봉기해서 세운 국가나 공산당이 분배에 관여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한 재화를 골고루 나누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게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상주의적 경제체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적게 일하고 많이 분배 받고 싶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 순진한 생각이었음이 20세기 중반 60여 년 동안의 소련, 중국, 동구, 북한의 실험적 공산주의와 중남미 아프리카의 실험적 사회주의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이익과 무관한 노동에 힘을 쏟지 않고, 자신의 필요보다 항상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보이기 때문에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분배 요구는 증가해서 경제적 파탄을 맞게 된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보다 오히려 훨씬 많은 해를 끼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스콧 알렌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후진국 복음 전파에 참여했던 초기에는 자신이 마르크스의 사회정의에 오염되어 있었음을 스스로 밝혔다. 피선교 국민을 서양인의 도움 없이는 가난을 극복하지 못할 무력한 존재로 보았으며, 이 시각은 시혜자인 자신(선교사, 교회)에게는 온정주의와 죄의식을, 수혜자(피선교인)에게는 의존성과 권리의식을 유발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사회정의를 외치는 사람에게 “빈곤계층에게 스스로 빈곤을 떨칠 힘을 주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가장 유익한 도구는 성경적 진리와 자비이다. 빈곤의 궁극적 원인은 부조리한 체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문화 속에 작용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있다”라고 전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 목적을 가지고 개개인을 창조하신다. 우리가 태어난 가정, 사회, 도시, 국가, 인종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개인에 부여하신 것이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권한에 불평할 수 없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웃에게 복음 전파와 그들을 사랑할 명령을 부여받는다. 창조주의 권한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경제적 지원과 사랑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할 뿐이다. 복음 전파가 선행하거나 동행하지 않는 사회적 돌봄은 수혜자의 구원과 무관할 뿐 아니라 방종을 낳기 쉽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미 6:8).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사랑의 실체이시며, 그분이 행하신바 즉, 사랑 가득한 공의가 균형 있고, 순서에 맞게 행해지는 게 바로 성경적 정의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영역주권과 일반은총

영역주권, 기독교인들의 세상살이 실핏줄

신무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바른 신앙생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 인 응답은 아마도 교회 중심의 예배나 순예배 출석 횟수, 교회 사역이나 기도회 참석 횟수 등으로 생각하기 쉽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생활 범위와 그 기준의 잣대가 무엇일까?

1880년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영역주권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 예정론 및 직업 소명론 등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그 모체다. 영역주권 사상이 담긴 카이퍼의 연설문은

국가적 의미, 학문적 목적들, 개혁과 원리 등 크게 세 주제로 나누어 있고, 이 세 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대답을 영역주권 사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개혁과 원리 부분에서는 영역주권 사상이 장로교회 정치의 기초일 뿐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이 뿌리 내렸던 국가들이 누리는 시민 자유의 근거였음을 역설했다. 즉, 영역주권 사상은 개인과 교회 내에서만의 차원을 넘고, 사회와 모든 우주적인 차원의 신앙과 이념뿐 아니라 행위의 삶 전체의 신앙을 강조한다. 이는 그의 연설문 서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이런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위한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한 관심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결코 전적으로 천진난만한 것이 아닙니다.”

영역주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서 이러한 ‘영역’들은 간혹 추상적이거나 개인들에게는 사뭇 비현실적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예컨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종교·국가 등으로 예시되는 모든 영역이다. 더 나아가 영역주권 사상이 소위 승리주의나 패권주의 같은 매우 그릇되고, 극단적인 행동 방식의 합리화 수단으로 유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승리주의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희생과 죽음보다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그분의 통치와 승리를 강조하는 극단적 사고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승리주의적 사고에 의하면 사회의 모든 영역을 기독교가 다스려야 하며, 교회는 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 집단에 목마르게 된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명예나 배급사상에 교회가 타락할 수 있다. 카이퍼는 밀라노 칙령과 국교화에 의하여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마침표를 찍고, 기독교의 소위 크리스텐덤(Christendom) 시대가 천여 년 동안 지속하는 유럽의 역사를 분명히 목도했다. 그런데 과연 그는 그 천년을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지배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상했을까? 그는 그 나라의 도래를 다시 꿈꾸었을까? 만일 그랬다면 그는 영역주권을 통하여 이렇게 외쳐야 한다.

“모든 영역은 교회가 지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영역주권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영역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 그분의 관심 영역이 무엇이었는가? 헬 통과 문화, 종교가 달랐으며, 가정 문제가 심각했던 사마리아 여인(요 4:5-26)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영역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대한 명제 앞에는 그 영역의 배경이나 환경, 편견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존중하였고, 친절하셨으나 단호하셨다. 모든 사람의 증오와 원한의 대상이었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의 갑급한 영혼이 그리스도가 다가가신 영역이었다(눅 19:1-10). 그 허전한 영혼의 영역에 구원이 이르심을 선포하셨다. 그리스도의 짧은 생애에서 한결같이 취하셨던 영역주권의 대상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영역조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나라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후 1:18).

“우리 삶의 모든 실제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140년 전 카이퍼의 영역주권의 외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과 범위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근거다. 영역주권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부터 분출해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그의 생명을 전해 주는 생생한 실핏줄이어야 한다.

자녀의 마음으로 풍당! – 우울과 자해

자해의 세 가지 유형과 성경적 자녀 양육 방법



최은영 교수
(햇불트리니티 신학대
학원대학교)

마음이 힘든 청소년들이 참 많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이 43.2%나 된다.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우울감에 대해서도 전체 청소년 응답자 중에서 37.5%가 ‘경험한 적 있다’고 했다. 2018년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했다. 그 결과, 100중 8명이 자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전문의들도 최근 청소년 자해가 늘어났다는 결과를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청소년들을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

자해가 우울증이 심해질 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자해가 우울증 때문에만 일어나는 걸까? 필자가 상담하며 경험한 청소년 자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흔히 생각하는 ‘우울로 인한 자해’다. 우울감이 심한 아이들은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의미를 못 느낀다. 그래서 자해로 이어진다. 극단적으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대부분 정말 착한 아이들이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많다. 부모의 높은 기준에 맞춰 잘하려고 애쓴다.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부모가 아닌 자신의 탓을 한다. 자책하면서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나는 부모님에게 자랑스럽지 못해’, ‘우리 가족은 나만 없으면 행복해’ 등과 같은 극단적 생각을 하고, 자해한다.

두 번째 유형은 ‘부모와의 애착실패로 인한 자해’다. 최근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유형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이 오가고,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이 유형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한다. 마음속에 늘 공허함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다. 자해하며 오는 통증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세 번째 유형은 ‘반항과 공격의 자해’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부모를 못마땅하다고 느낀다. 부모에 대한 반항심과 복수심이 크다. 자녀 앞에서 싸우는 부모, 자녀의 능력에 비해 높은 결과를 요구하는 부모, 엄격한 훈육으로 버겁게 하는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자해를 한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부모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당신들 편안하죠 보자’라는 부모에 대한 복수심을 자해로 나타낸다.

아이들의 판단력은 성숙하지 못하다. 육하는 마음으로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끝없이 들여다봐야 한다. 너무 높은 기대치를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주었는지, 자녀 앞에서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늘 돌아보며 아이들을 살피야 한다. 시간을 내서 자녀의 마음을 묻고, 버겁고 힘든 자녀의 마음을 만져줘야 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아직 죄인 된 우리도 사랑하신다. 부모도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한다. 자녀가 성격이 좋고, 성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도 늘 곁에 있고, 동일한 사랑을 줘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고, 못하고, 높고, 낮음 등의 기준이 없다.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다. 부모는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청소년 감성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7편 우울·자해’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2월 12일
본문 <잠언> 23장 17~21절



1.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어떤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나요?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오직 __를 __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라”(잠 23:17).

2. <잠언> 23장에서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어울리지 말고 하신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골라보세요. (잠 23:20~21).

- 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 ② 고기를 즐기는 사람
- ③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 ④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큐티 간증

“큐티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유년1부 2학년 5반 정윤지입니다.

저는 큐티를 지난해부터 시작했어요. 요즘은 매일 자기 전에 큐티를 하고 있어요. 밤에 큐티를 하고 자면 마음이 정말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큐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잠언> 13장 1~5절이에요. ‘지혜를 듣고, 생명을 말해요’라는 제목으로 묵상했어

요. 말씀 내용은 선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생명을 지킬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큐티하면서 좋은 점은 마음이 정말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큐티할 거예요.

요. 큐티를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큐티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꼭 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윤지 학생
(서빙고 유년1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유년1부 1학년 2반 장한솔입니다. 큐티 간증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저는 아주 아기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큐티를 했어요. 지금은 학교 가기 전에 혼자 큐티를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큐티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큐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

에베소서> 2장 4~10절이에요. 제목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대요. 구원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가 예수님이 정말 좋고, 최고 멋진 분이라

는 생각이 들었어요.

큐티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게 돼서 좋아요. 앞으로는 <큐티노트>도 쓰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장한솔 학생
(서빙고 유년1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믿음

◆ 12월 11일 월요일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15:21~28

이재훈 위임목사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 ‘담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를 스펔전 목사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백향목이 자라난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는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때로 침묵은 거절이요, 냉정함입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종을 차별하신 게 아닙니다. 사역의 일반 순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은 거절입니다.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25절을 보면 여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이 26절에

나옵니다. 더 놀라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은 믿음을 만들어 주시거나, 회복시켜 주시거나, 강건하게 해주시는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하실수록 더 낮은 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신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27절에 나오는 여인의 말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여인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부스러기만 있어도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한없이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거절하실 때 공격적이고,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옳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단순히 인간의 끈질김으로 여기면 자기 의가 가득한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끈질긴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인 까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는 겸손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네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이 되어 작은 소원들도 응답 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2일 화요일

웃자락만 달아도 충분합니다

〈마가복음〉 5:21~34

이재훈 위임목사

오늘 말씀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온밀하고 조용히 나아와 예수님의 웃자락을 만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들을 피해야만 하는 고립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질병을 고침 받고자 나왔지만, 공개적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하고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간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단 한 가지 관심은 병이 낫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은 동기로 예수님을 찾고 만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을 고침 받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어느새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대로 이뤄지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보며 “누가 내 웃자락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가오는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 받은 영혼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두려움에 떨며 나왔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웃자락을 만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예수님도 부정당한 자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부르심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짚어지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부정함을 모두 십자가에서 짚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책감으로 나오지 못하는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숨어 있는 자들을 드러내셔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

셨습니다(34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웃자락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정도에만 머무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정함, 죄와 허물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예수님의 웃자락을 만지십시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을 모두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짚어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 12월 13일 수요일

말씀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7:1~10

이재훈 위임목사

신약성경에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간 세 명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입니다. 세 번째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온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이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며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병든 자신의 종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자신의 종이 병들었으니 고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심각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에 종이 병들었다고 낮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 로마 백부장이 당시 사회와 매우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백부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둘째, 겸손한 믿음 때문입니다. 유대 장로들도 로마 백부장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믿음과 겸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겸손이 큰 믿음이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나의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담대한 믿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장로들의 청을 받고,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로마 백부장이 친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고 안수하지 않아도, 인격적인 접촉이 없어도,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종아, 나올지어다”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로마 백부장처럼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14일 목요일

소유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9:1~10

이재훈 위임목사

삭개오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고,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위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고, 따돌림당하는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분의 수석어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하지만 공개적으로 나갈 수 없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무 위에 숨었던 것입니다. 놀랍게 예수님은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

름을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얼굴도 모르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셨으니 삭개오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아실 것이고, 그의 고민과 아픔도 아시는 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거나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같이할 친구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삭개오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하게 인정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누군가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한 것보다 더 깊이 인정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회개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우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소유물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결단으로 인해 삭개오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세리장이란 직업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신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셋째, 부정한 삶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

람들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속간제’는 가치로써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타인에게 배상할 때 손실액에 20%를 더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네 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스스로 돌이키기 어려운 사람, 나무 위에 올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영혼, 사람들의 시선조차 상처가 되기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갇혀 있어 외로운 인생, 나무에 올라 멀리서 구원자를 바라만 보고자 하는 이들이 이 시대의 삭개오입니다. 작은 예수 40일 기간에 우리가 삭개오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에 올랐지만,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은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 12월 15일 금요일

옥함을 깨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7:36~50

이재훈 위임목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만나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마을의 죄인인 한 여자’라고 소개됩니다(37절). 이 표현은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머물며 식사하시는 장면에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가져온 옥함을 깨뜨려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 드렸습니

다.

이 여인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성경에 여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옥함을 예수님 앞에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기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사회에 기여한 가치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음으로 인

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매우 무례하고 도발적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두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오백 데나리온 빚진 자와 오십 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고 대답했습니다(39~43절).

그 여인은 많은 죄를 지었기에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인은 감격의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옥함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행동을 받아주신 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세상의 비난과 평가를 모두 떠안으신 것입니다. 여인의 부

정한 과거를 모두 떠안으신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놀라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옥함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응답했던 여인처럼, 우리도 최고의 예배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맛있는 말씀 해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골 1:1)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집필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데는 모두 하나님의 뜻(의지)이 작용했다는 기본적인 의미(과거)가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현재)이 함축되어 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미래)를 다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사도권을 부여받은 순간부터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의 사명 역시 불변할 거라는 바울의 계속적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한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다. 물론 슬픔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슬픔을 동반하면서 살아가지만 말이다. 충분한 애도 과정을 지나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과 함께 애도하는 사람이 있다. 기적적으로 어머니의 불치병이 치료되는 경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다. 반면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구할 게 없으니 안심하고 신앙을 등지는 사람도 있다.

바울은 어떠했는가? 바울은 언제나 모든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했다. 자기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

다.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 바울은 신앙 여정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으며,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 흔들려 하나님의 대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바울의 고백에는 이렇게 많은 마음이 담겨 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바울은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골 4:18).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말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내용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옥에서 나와야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주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울은 수미상관 구조로써 마지막 부분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타락한 세상에서 말하는 ‘왜곡된 자유’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인생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난 관처럼 보이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이 땅에 오신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12월 18~24일
<집안> 26:13~28:28



성도의 삶에서 주의할 말과 행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미련함은 게으름으로 나타난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게으름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또 부적절한 말과 다툼으로 시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술로 그럴 듯하게 꾸미나 속으로 속이는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패망할 것이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 충성된 권고를 귀담아듣고 지혜를 얻을 때 비방과 재앙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땅의 재물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맡기신 양 떼

묵상 포인트 1: 죄의 뿌리는 교만이며, 게으름의 뿌리도 교만이다. 교만한 마음으로 거짓 아첨, 조롱, 비방, 미움, 분노, 자랑을 일삼지 말고, 겸손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한다.

를 성실히 돌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묵상포인트 2: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돌이키는 게 지혜다. 죄를 감추고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할 뿐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한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자.

▶악인은 추격하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담대하다.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로 인해 안정되고 굳건히 세워진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지만,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부유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낫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한 지도자는 포학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탐욕을 멀리하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자는 풍성한 복을 받는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신 성탄절이 다가온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김이 유에 대해 깊이 묵상하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류 구원의 서막이 열렸다. 예수님이 베들레헬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구약성경(미 5:2)의 성취며, 온 백성에게 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묵상을 위한 가이드

▶“게으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게으른 습관을 버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고 의미 있게 살기로 다짐하자. ▶내가 바른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친구가 누구인가? 나 또한 친구의 성장을 위해 지혜롭게 조언하며 사랑으로 섬기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버릴 죄가 무엇인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자.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며,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고 권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를 추구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보자. ▶성탄은 하나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다. 세상 사람들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가족이나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실행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함박웃음을 위해서!

인천온누리교회 함박웃음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함박웃음은 인천시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고려인이 함박웃음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해 물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앞으로도 함박웃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함박웃음에서 한국어 교육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함박웃음의 사명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려인들을 섬기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고려인들이 함박웃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웃음을 잃어버린 고려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려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져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무엇보다 고려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박웃음이 고려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김종완 장로(인천온누리교회)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멘토가 멘티에게

빛의 금.단.증.상

“크리스천은 빛을 지면 안 되나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잡언〉 22장 7절을 보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빛진 자는 빛쟁이의 종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질의 빛은 빛진 사람을 심리적으로나 실제 관계에서 노예 상태로 만드는 힘이 있다. 성경에도 빛을 지는 사람(채무자)들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들이 등장한다. 빛으로 인한 어려움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적 말씀을 볼 수 있다. 빛은 타락 이후 인류의 경제 생활과 함께 한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빛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금. 우선 빛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빛은 당연히 금리가 있다. 금리의 영향력은 최근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최근 2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돈줄이 말라 세계 경제가 엄청난 요동을 겪고 있다. 빛이 무서운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나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경제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빛을 진 사람은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다른 신용카드 대출로 돌려막는 등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지금보다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면 파산할 개인과 기업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변동성이 큰 금리는 선풍한 채권자 개인과 기업에게 돌아킬 수 없는 파산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빛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빛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 빛은 실제적으로 단순하지 않다. 현대 금융사회는 빛으로 굴러간다고 할 정도로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 개인 대부분 빛을 지고 있다. 선진국이나 우수 기업, 부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적절한 부채비율의 기준을 놓고도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개인의 경우, 살기 위한 집을 사거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을 매우 건전한 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남의 눈을 의식해서 호화롭게 살려고 하거나 빠른 성공을 위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빛을 지는 것은 탐욕의 영역으로 매우 비성경적이다. 〈

골로새서〉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숭배이니 탐욕적 대출은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요즘 세상의 현상인 ‘영끌’과 ‘빚투’, ‘빚테크’를 경계해야 한다.

증. 돈을 빌려줄 때는 증여를 감당하는 마음과 금액 수준으로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팎에서 용돈 수준이 넘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상대방이 빚을 꼭 갚겠다는 의지를 가진 양심적인 사람이고, 상대방의 경제적 형편이 현격히 나아지는 경우다. 신앙인이란 교회 안에서 금전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급전이 필요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금전 거래는 금욕한 마음, 못 돌려받는다는 마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 빛은 꼭 상환해야 한다. 모든 것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고도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가장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금리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갚을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상환 재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자도 꼬박꼬

박 갚아야 하고, 신용관리도 잘해야 한다. 값싼 금전 거래의 모습과 높은 신용도는 크리스천이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의 모습이다.

빛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전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비전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물질에 연약하기에 욕심으로 과도한 빚을 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대출금이 있다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원리금 연체 없이 갚아서 신용도를 고도로 유지해야 한다. 나의 신용이 크리스천의 신용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신용도 키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의 보혈에 빛진 자다. 우리는 모든 죄의 빛을 탕감받은 자다. 오직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워 세상을 밝게 한다.



박기일 멘토
(길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친밀감 향상시키는 세 가지 조건

부부의 친밀감은 서로가 ‘지정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과 자각이다. 자신과 배우자가 온기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하나 되었다고 느끼는 감정과 의지다.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온화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친밀감을 기대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결혼생활이 한 겨울 눈 폭풍이 치는 것 같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밖은 춥더라도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친밀감과 만족, 행복을 누리기를 기대할 것이다. 부부의 친밀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부부가 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화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대화의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말을 많이 하지만 귀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화는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대화에서 성숙과 성장이 필요하다. 서로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부부가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화에 긴장이 없어야 한다. 평소 같은 말과 행동을 했는데 배우자가 변덕스럽게 반응한다면 자연스럽게 긴장하면서 말하게 될 것이다. 이상적인 대화 자리는 서로가 편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느껴지는 생각과 의견을 불편함 없이 꺼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긴

장감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더 깊고 편안한 대화가 이뤄진다. 한두 마디 말에 상처를 받고, 기분이 상해서 말문을 닫아버리거나 배우자를 쏘아붙이는 태도는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한다. 지속적인 단절 경험 발생하면 다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 부부의 대화 분위기는 긴장감이 없거나 긴장의 강도가 낮아야 한다.

기분 나쁜 말이 있다면 기분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안정감이 필요하다. 사람은 다양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다. 설령 칭찬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 늘 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서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물어봐야 한다.

둘째, 투명성이 중요하다. 투명성과 정직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부 조건 중 하나다. 정직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 부부가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투명성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하게 되고, 대화를 회피하게 된다. 거짓과 회피가 많아질수록 부부

의 대화가 사라지게 되고, 친밀감이 식게 된다.

자신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배우자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에 금이 가면 서로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한다. 배우자를 끊임 없이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의심이 클수록 부부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 부부의 친밀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서로에게 숨길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만일 숨기는 감정과 생각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풀어놓는 게 좋다. 심각하고 무거운 것뿐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 느낌, 사건을 현명하고 투명하게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자신의 약점까지 보일 수 있는 용기다. 간혹 자신의 어려움을 감추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털어내서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부부의 친밀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의 약함과 어려움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말하지 않는 관계보다 친밀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의 약점과 힘든 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약함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서로를 더욱 깊숙이 여길 수 있다. 이전보다 친밀함을 향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약점과 어려움을 배우자에게 나누는

게 친밀감에 도움이 된다면, 배우자의 약점을 품을 수 있는 결단도 친밀감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신의 약점을 배우자에게 나누었다면 배우자의 약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에게 느꼈던 불편했던 점들이나 화가 났던 점들이 바로 배우자의 약점이다.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흔들렸던 사건 중에서 배우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연약함이었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부단히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신의 약점을 가릴 필요도 없고, 배우자의 약점을 매물차게 거부할 필요도 없다. 불완전한 우리는 서로 약점을 고백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부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친밀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친밀감을 누려야 한다. 그 어떤 관계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친밀감을 경험해야 한다. 친밀감을 누리고 성장시키기 위한 제안은 대화, 정직,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는 것이다. 서로 고백하면서 결혼생활에서 친밀감을 누리는 부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음악으로 만나는 기독교

흑인음악 역사와 기독교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재즈’라는 음악 장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재즈는 가장 가난한 민중의 일상에서 탄생해 주류의 문화가 된 극히 보기 드문 첫 번째 예이다.”

인류 역사에서 예술이나 문화는 항상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처럼 지역을 지배하고, 문화를 주도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재산가나 지식인들에 의해 인류의 예술사가 진행됐다. 흑인음악은 역사상 처음으로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주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영향을 주고 있는 R&B나 힙합, 록(Rock) 등도 모두 흑인음악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글을 통해 흑인의 음악, 정확히는 미국 흑인, 즉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의 음악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했는지, 그 음악이 어떻게 기독교 음악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인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일해야 했다. 흑인 노예들의 숫자가 많고, 이를 감시하는 백인들의 수가 적었으므로 흑시 반역을 일으킬지 몰라 그들을 가혹하게 대했다. 흑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백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다. 흑

인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반역을 모의할까 두려워 서로 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못하기에 이른다. 흑인들은 죽도록 일하고 맛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위로할 수도 없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맛봤다. 밖에서 일할 때 하늘을 향해 슬픈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필드홀러(field-holler)’라고 부른다. ‘들판에서의 절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가장 참혹한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 외치는 절규가 ‘기본적인 흑인음악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한(恨)’과 비슷한 정서가 흑인음악 바탕에 서려 있다고 보면 되겠다.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 참혹한 상황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백인들의 언어도 알아듣게 되고, 아주 조금은 그전보다 자유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면서 노동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노동요’가 만들어졌다. 이 노래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블루스’라는 장르다. ‘blue’, 즉 ‘우울하다, 슬프다’라는 뜻의 복수형이다. 아프리카, 특히 서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전통음악과 필드홀러를 통해 나오는 정신적인 마음, 거기에 더해진 게 미국 땅에서 들리는 백인음악과 클래식 곡들이다. 이때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땅에서 프랑스인과 흑인

사이에 혼혈이 태어나는데, 이들을 ‘크레올’이라고 부른다. 이 혼혈인들에게 기본적인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그들이 악기를 배우면서 그전에 불렀던 노래들과 주로 피아노와 관악기로 이루어진 곡들이 체계화되면서 재즈가 탄생하게 된다.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는 우연들이 겹쳐서 블루스, 재즈, 로큰롤, 스윙 등 다양한 미국의 흑인음악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백인들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흑인들끼리 교회를 세워 스스로 위로하고 예배하면서 찬양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흑인영가’와 ‘가스펠’이다. ‘God spell’, 말 그대로 ‘신의 글자’라는 뜻이다. 음악적으로는 블루스와 가스펠은 같은 장르라고 보면 된다. 그 음악들은 힘든 노동의 삶 속에서 춤과 함께 불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와 위로, 기쁨의 도구가 되었다.

흑인음악은 삶과 너무 밀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음악을 찬양으로 고백했을 때 묵직하고 진실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시대를 살았던 흑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찬양 도구로 삼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음악적,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흑인음악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본다. 지금도 흑인음악의 정체성은 자유함이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흑인영가를 빼놓을 수 없고, 많이 부르는 CCM이나 합창, 그 밖의 많은 찬송이 흑인 가스펠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삶은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음악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위로와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자유로움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와 흑인들이 부르는 할렐루야를 비교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QR코드 참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운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시 30:11).



헨델
‘할렐루야’



흑인들이 부르는
‘할렐루야’



이명근 성가사
(찬양사역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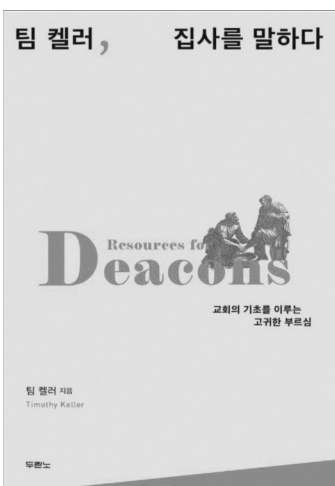
두란노 신간

오늘의 힘(Hymn)

‘찬송가, 찬가’

집사는 부르심, 사랑, 특권!

빛으로 오신 예수님



〈팀 켈러, 집사를 말하다〉
팀 켈러 저 | 두란노 | 16,000원

사는 부르심이고, 사랑이며, 특권이다.

또한 책 〈팀 켈러, 집사를 말하다〉에서는 섬김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집사 직분을 가진 성도들을 위한 탁월한 가이드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 집사의 올바른 의미와 역할을 배우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 그런데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팀 켈러, 집사를 말하다〉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올바른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고, 집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집사는 장로가 될 훈련을 하는 자리만이 아니다. 물론 집사가 된 이후 장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집사’라는 직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이다.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집사가 되는 길이 곧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명이다. 집



‘참 빛’
히즈윌 곡

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 외로운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은 기쁨과 생명이 가득하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탄의 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추천한다. QR 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가정생활 편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법을 알아보자. 냉난방 온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동·하절기 적정 실내 온도는 여름철 25~28도, 겨울철 18~20도다. 냉난방 온도를 1도씩 조정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110kg를 줄일 수 있다. TV 시청을 1시간만 줄여도 연간 전기 255.52kWh를 아낄 수 있다.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7.9kg도 함께 줄일 수 있다. 물티슈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져 잘 썩지 않고, 불에 태우면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집에서는 물티슈 대신 행주나 수건 등을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국내 인구 10%가 물티슈 사용을 줄이면 연간 이산화탄소 11.39t을 감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 줄이기, 냉장고 적은 용량 유지하기, 비데 절전 기능 사용하기, 세탁기 사용 횟수 줄이기 등의 방법으로 가정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

fondant

새해 성경 통독 갓GOD생 챌린지

2024년 풍당과 함께



“갓(GOD)생 살자!”

CGN 새해 성경통독 챌린지

CGN이 새해 성경통독 챌린지 ‘갓생’ (이하 ‘갓생’ 챌린지)을 실시한다. ‘갓생’은 하나님(GOD)과 인생(人生)을 합한 신조어로,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삶을 의미한다. CGN ‘갓생’ 챌린지는 12월 22일(금)까지 CGN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새해 말씀을 가까이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갓생’ 챌린지는 1개월, 6개월, 12개월 도전 기간을 나눠 진행된다. 1개월과 6개월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됐고, 12개월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다. 12개월 챌린지에서는 기독교 OTT ‘풍당’ 앱에서 ‘우리말

성경,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콘텐츠를 활용해 성경 통독을 한다. CGN ‘갓생’ 챌린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CGN 홈페이지 또는 ‘풍당’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275-330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심예찬 봉사단원,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UCC 부문 우수상’

NGO 더멋진세상 심예찬 봉사단원이 외교부에서 개최하는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UCC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심예찬 봉사단원은 올해 1월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에 파견돼 ‘ECD(Early Child Development) 유치원’ 유아교육 봉사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ECD 유치는 르완다 수도에서 약 60km 떨어진 응호망가와 가혼도 지역에 있다. 심예찬 봉사단원은 “이번 공모전

을 통해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과 르완다 아이들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이 르완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도록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외교부에서는 공공외교를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 홍하영 기자

두란노서원 QT세미나 ‘굿모닝 갓’

1월 15일 오전 10시 서빙고 시온홀

두란노서원 QT세미나 ‘굿모닝 갓’이 2024년 1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QT세미나 ‘굿모닝 갓’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한 과정이다. 양성

민 목사(QT사역 담당)가 QT의 정의와 방법을 강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duranocom/seminar)에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3만 원. 문의: 02-2078-3252 / 김예은 기자 ye2un@onnuri.org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갈렙선교학교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대면과 비대면 과정으로 진행된다. 1~5주차 비대면, 6~8주차 대면 과정이 열린다. 참가신청은 1월 7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갈렙선교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미션 헬퍼십’, ‘타문화 이해’, ‘이주민 선교’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국내 선교현장 체험 등이 이어진다.

문의: 010-2833-9936

두란노어머니학교 12월 P.P 기도회

12월 18일 서빙고 선교관

두란노어머니학교 12월 PP(Power Prayer) 기도회가 12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01호에서 열린다. 기도회 실황을 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방송한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4

‘함박마을 초청잔치’

12월 23일 정오 인천온누리교회

인천온누리교회가 ‘함박마을 초청잔치’를 12월 23일(토) 정오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개최한다. 고려인 가족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는 은혜의 장(場)이다. ‘함박마을 초청잔치’에서는 함박웃음 학생, 인천온누리교회 차세대,

안산M센터 러시아에배팀이 합창, 부채춤,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 등을 한다. ‘함박웃음’은 인천온누리교회가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이다. 문의: 010-4274-8422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3040을 위한 축복 축제’ 개최

12월 30일 오후 4시 서빙고 두란노홀

이수공동체가 ‘3040을 위한 축복 축제’를 12월 30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최한다. 결혼 이후 성인공동체 이동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와 성인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젊은 가정의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이수공동체에서는 젊은 부부들에게 부부관계, 출산 및 양육, 자녀 교육 등을 주제로 상담 및 코칭을 제공한다. 공동체 정착을 돕는 ‘링크순’과 ‘젊은 다락방’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10-5917-5608

/ 김다애 기자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에게해 크루즈’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에게해 크루즈’ 참가자를 모집한다. 내년 4월 29일(월)부터 5월 7일(화)까지 이스탄불, 트로이, 에베소, 밋모 등지를 방문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성경과 인문학을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이다. 역사드라마로 읽는 성경 참가

자도 모집한다. 2024년 3월 18일(월)부터 5월 20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린다. 신규와 중간사그리스, 마카비, 로마 역사를 주제로 류모세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010-4902-1022)

차세대 독후감 대회 시상식

1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온누리교회 도서관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2023 차세대 독후감 대회’ 시상식이 12월 17일(주일) 오전 11시 30분 온누리교회 도서관(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403호)에서 열린다.

이번 차세대 독후감 대회에는 26명이 참가했다. 사랑상 6명, 소망상 9명, 믿음상 11명이 수상한다. 사랑상 수상자는 김예담(서빙고 유년1부), 김송윤(서빙고 유년2부), 황도훈(서빙고 초등2부), 이하경(서빙고 초등1부), 김도현(서빙고 소년2부), 김하원(서빙고 소년2부)이다. 소망상 수상자는 황한나(서빙고 유년3부), 문지우(서빙고 유년1부), 조아인(서빙고 유년1부), 고하은(서빙고 유년2부), 박주은(서빙고 유년3부), 고윤(서빙고 초등1부), 오나윤(서빙고 초등1부), 정지원(대전 초등부), 이준규(대전 소년부)다. 믿음상 수상자는 손소은(서빙고 유년1부), 김강건(대전 유년부), 김신희(서빙고 유년2부), 이준완(대전 유년부), 정영광(인천 유년1부), 박서준(서빙고 초등1부), 조은유(서빙고 초등1부), 김의빈(서빙고 초등1부), 신규원(서빙고 소년1부), 양지석(서빙고 소년1부), 정성윤(양재 소년부)이다.

/ 홍하영 기자

2023 선교사 간증집 <길을 잇다> 발간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000선교본부에서 2023 선교사 간증집 <길을 잇다>를 발간했다. 선교사 간증집 <길을 잇다>에는 선교사 22명의 사명과 은혜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선교사 간증집은 전 세계에서 복

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 선교지의 변화, 영혼 구원 이야기 등을 매년 연말 책으로 엮어 발간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헬로맘 스쿨 수료 간증



/ 임미진 성도(성동광진공동체)

사랑과 인내의 중요성

헬로맘 스쿨을 수강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아기를 낳기 전에 헬로맘 스쿨을 수강하면서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주신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출산을 하고 배앓이가 심한 아기를 거의 하루 종일 안고만 있었다. 그때 울면서 이 기간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아기가 첫돌을 맞았다. 헬로맘 스쿨 수강 횟수가 늘어나면서 아기가 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헬로맘 스쿨이 예민한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방향을 바로 세워주는 지표가 되었다.

매번 아기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육아가 힘들어서 지쳐갈 즈음 어떤 사모님께 책 한 권을 소개받았다. 기독교 중심 교육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모님이 추천하는 필독서라고 해서 바로 구입해서 읽었다. 그런데 운동 ‘이유 없는 즉각적인 순종’과 ‘훈계 방법’ 뿐이었다.

하루는 이유식을 먹이는데 아기가 높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위험한 행동을 했다. 책에 나온 대로 엄하게 교육했다. 그러자 아기는 울면서 보채고, 거부 반응을 보였다. 헬로맘 스쿨 강의를 들은 이후부터는 아이에게 부드럽

게 말해주면서 안아주었다. 그러자 아이의 문제 행동이 사라졌다. 강의를 들으면서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헬로맘 스쿨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고, 바른길을 제시하는지 실감했다.

민지 앓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팀장님과 스태프들의 간증과 기도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임을 느끼게 됐다. 남편과 대화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다투지 않고, 지혜롭게 넘어가는 방법을 배웠다. 양육과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데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헬로맘 스쿨을 수강하기 전에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한없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둘째도, 셋째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믿음의 가정을 완성하고, 아이를 양육하려면 헬로맘 스쿨은 필수 과정이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다. 발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혜와 방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적용하면서 나의 믿음도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기를 기도한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아쉬레, 마리 선교사(레바논)

사랑 답아, 희망 답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찬양의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이 모든 게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그런 현상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공부할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을 마땅히 누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땅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살아가는 난민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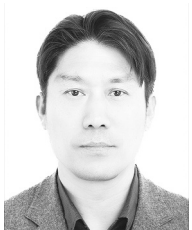
저희는 레바논 베카의 난민 텐트촌 앞에 ‘작은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들은 레바논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난민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아무도 건물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

다움의 손길과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벽이 세워지고, 바닥이 깔리고, 페인트를 칠하고, 점점 아이들의 학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던 학교 건물과 그 옆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의 삶이 참 많이 닮아있습니다. 폐허 같았던 건물이 저희와 연결되고, 저희의 손길이 닿으면서 점점 학교의 모습으로 새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폐허 같아 보이는 난민들의 삶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담아 학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 친구들이 새롭게 달릴 창문을 통해 교실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볕을 바라보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며 난민의 고단한 삶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놀이터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과 하나로 연결되어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선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 평택온누리교회 아웃리치 간증



/ 김기복 집사(평택온누리교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평택온누리교회 바울다락방이 지난 11월 4일(토) 군산M센터로 아웃리치를 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아웃리치였다. 지난해 아웃리치에서는 다락방 장로님 부부와 순장님 부부 등 8명이 1박2일 숙박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했다.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어 올해는 다락방 식구 21명이 동행했다. 노방전도사역, 어린이사역, 이미용사역, 블레싱, 서비스지원팀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섬겼다.

나는 지나가는 청년을 전도하고 싶어서 다 갔다. “군산M센터에서 이미용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가보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지금 찾는 곳이 미용실은 맞지만 자신은 외국인이라 아니라며 우리를 낯지시 바라보며 떠났다. 그런데 한참 뒤에 그 청년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찾아와 전도지와 전도용품 등 챙겨주시면 친구들에게 선물하겠다고 했다.

러시아 형제 안드레이는 이미용사역을 하던 중에 머리에 큰 낭종을 발견했다. 때마침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현장에 함께 계시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장로님이 CMN

마하나임팀과 연결을 해주셔서 11월 26일 평택M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뒤로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서 감사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아웃리치였다. 그러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 선교사님들도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셨다.

아웃리치 일주일 뒤 선교사님이 사역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다. 미얀마 형제 5명이 전도지를 들고 군산M센터를 찾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다. 그 형제들은 지금도 주말마다 찾아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많은 이주민 청년이 군산M센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9-20).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간증



/ 김사랑 성도(가명)

하나님의 차이!

지난 5년 동안 결혼하기 전 가졌던 기대와 상상을 180도 벗어난 남편 앞에서 나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다. “내가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 없어”라며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남편에게 절망해 있었다. 부부이기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더는 하루도 함께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가족에게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참가를 권유받았다. 나는 “하가훈을 뭐 하려 하나. 할 거면 별거하면서 참석하겠다”고 말하며 불편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남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신념과 논리를 조금도 수긍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반감을 표하며 무시하고 비난했다. 하지만 남편은 하가훈에서 듣는 모든 이야기와 선행 부부들의 경험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고 감동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남편을 보면서 ‘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했다. 왜 내가 5년 동안 호소했던 이야기에는 화를 냈으면서 이곳에서 듣는 이야기는 스펀지처럼 흡수할까? 바로 ‘하나님’의 차이였다. 내 주장에는 하나님이 계

시지 않았다. 우리의 만남과 가정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했었다. 더 나아가 왜 하가훈같은 프로그램이 세상에는 없는지 생각했다. 하나님 없이는 이 기적과 같은 회복이 있을 수 없기에 세상은 흉내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가훈에 오기 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였다.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을 연기한 남편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당하고, 언어폭력에 시달려 마음이 너털너털해진 초라한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가정의 주인이 되려 했던 절한 척이 너무 심한 여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 시간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모르고 괴로워하며 살았을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직무를 유기한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별거와 이혼의 기로에서 참석한 하가훈은 5년 동안의 고통과 고민, 방황과 좌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회복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장로칼럼

인도하심과 부르심 따라!



김광동 장로
(NGO더멋진세상 대표)

2023년에도 NGO 더멋진세상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사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와 적극적인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항상 강조하셨던故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으로 시작되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이루기 위해서 선교지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3년 동안 NGO 더멋진세상은 질병과 가난 퇴치를 목표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더 멋진 마을’을 조성하고,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긴급구호’와 ‘난민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느낄 수 있었다. 각종 재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에 난민구호에 더욱 힘써야 했다.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전쟁으로 인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에게는 거처와 위생용품을 제공했다. 어린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도 집중했다.

하나님이 NGO 더멋진세상에 더 많은 역할과 능력을 주셔서 전 세계 곳곳에서 ‘더 멋진 마을’을 계속 세울 수 있었다.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양 실조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이들에게 풍성한 영양을 공급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NGO 더멋진세상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 이사진과 실행위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와 성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정말 많은 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 특히 NGO 더멋진세상의 노정숙 의료팀장이 그간 봉사과 헌신을 인정받아 KOICA 외교부장관 표창 해외봉사상을 수상하는 경사가 있었다. 난민 지역을 다니면서 음악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이지원 실행위원은 평화음악회를 개최하고, 그 수익금을 헌금하셨다.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NGO 더멋진세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넘어진 자와 잃어버린 자를 못본 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돌보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특히 시리아 난민, 남수단 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돌보고,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한 후속 구호 조치에도 언제든지 참여할 준비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처럼,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것이다.

NGO 더멋진세상 임직원 모두는 지구촌의 병든 자, 굶주리는 자, 강도 만난 자들을 돕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명감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한다.

권사칼럼

나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



박인숙 권사
(신원산업동체)

요즈음 나이 든 사람들은 “늙으면 별수 없어”, MZ세대들은 “이생망이야(이번 생은 망했다는 준말)”라는 체념과 포기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인기 가수가 무대에서 “소리 질러!”하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소리 지르고, 때장을 한다. “늙어도 괜찮아”, “이번 생은 망하지 않아”라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는 외침인지 모르겠다.

성경은 “말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사 40:6, 8)고 했다. 우리 육체는 풀처럼 마르고 시드는 게 본질이다. 그것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생이 있다”라며 소리 높이라고 하신다.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풍자한 나훈아 씨가 부른 가요다. 아마 그는 소크라테스를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한 게 아니었을까? 세상의 철학이나 인문학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비록 몸이 아프고, 약점과 실수가 있고, 열등감이 있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

하고, 흠이 없으며, 결핍이 없다. 우리의 결사 랍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 그러면 놀랍게도 속사람이 결사랍을 덮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겨처럼 혼비백산하지만,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불이 되어 내 안에 우상들이 불태워진다. 바위같이 굳어진 심령도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 부스러뜨리고, 부드럽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문제를 보고 내 능력을 보면 해결책이 없다. 닫힌 문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파하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은 엘리 제사장이 될 것인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 나이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선포하면 말씀이 새겨지고, 움직이고, 믿음이 자란다. 나는 문제로 인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 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권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우울은 떠나가라! 경제는 회복되라! 결혼의 문, 취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내 이야기를 들을 때는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자신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아직 믿음의 근육이 생기지 않아서다. 자신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사용하자. 믿음의 근육은 말씀 근육이고, 전도 근육이며, 기도 근육이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붙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고 지속하면 근육이 생긴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다. 복음을 외치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앙에세이



최종현 목사
(하늘대학부)

<마가복음> 15장 3~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절정의 장면이다. 빌라도가 붙잡혀 온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다.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라고 대답하셨다. 추가적인 설명

도, 스스로 변명하는 표현도 덧붙이지 않으셨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갖은 방법으로 끌어 내리려 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느냐?”라며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는다. 예수님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억울하고, 변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다. 답답한 마음에 역정을 내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으로 순종하셨다.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고 도망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에 잠잠히 감당하셨다.

십자가의 길은 침묵의 배경에서 잠잠히 걸어가는 단순한 순종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잔을 내려놓고 싶은 고통이 있으셨지만, 기도하셨다. 감정, 상황, 간구, 모든 것에 대해 먼저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더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 뜻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철저히 단순한 침묵의 순종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길이 될 것인지,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설명하지 않으셨다.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부르심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묻지 않았다. 따지지 않고, 재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 그물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담대한 증인들의 삶이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강압적인 게 아니다. 제자로서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허락의 선포다. 먼저 모든 길에 앞장서겠다는 격려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다. 예수님은 어떤 제자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다.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한 사람에게도,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온다는 사람에게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행위로 응답했다. 우리가 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순종하는 유일하고,

타당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르시기에 따라가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친히 침묵의 순종을 보여주셨다. 채찍질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침묵 속에 순종하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 여러 가지 고소를 당하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순종으로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울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울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자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온누리선교재단 자산관리 경력직 채용 업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업무 형태: 정규직 사원(주 44시간 근무) 자격: 부동산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부동산 거래 및 관련 법규, 세무, 부동산개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한누리학사 탈북민 대학생 남자기숙사 입주자 모집 모집: 서울 소재 2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과정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 및 동일한 한 과정의 입학 예정자 인원: 남자 6명 문의: 010-7107-5270(한누리통합팀)
부천032.322.9686 토요일예배 9: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를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031.895.6500 토요일예배 토요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예꿈2부: 교육관 꿈땅(B동 2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를(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대전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평택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032.437.9686 토요일예배 9: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02.475.9686 토요일예배 11: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영종032.752.7937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땅(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남양주031.565.9686 토요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막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막도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국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외과,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4년 2월 1일~15일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	---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통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4년 2월 1일~15일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h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1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균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국 김성웅
김승겸 김승환 김명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승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혜태 럼동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재삼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백대철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안사무열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유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현규
임용성 장동원 장대철 장병전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식
정형권 정희석 제지윤 조동우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욱 최중현 최형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희희 황신연
황중연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중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황유일

●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용산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김종균 네트라 뉴이엘은 한백남
박씨마 백승현 비 켈 서영철
생부애는 사가르 윌리엄 에릭 마이
클스톨츠 이강혁 이만영 이보영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영 정육진 제인랑
존레이 채예미 최정현 하효경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강기용 권대식 권에람 김가희
김상규 김진재 김동규 김동우
김승겸 김승환 김명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승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혜태 럼동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재삼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백대철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안사무열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유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현규
임용성 장동원 장대철 장병전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식
정형권 정희석 제지윤 조동우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욱 최중현 최형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희희 황신연
황중연

● 사역장로

강경국 강가석 강영재 강이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선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중 김병철
김명훈 김상식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익 김수웅 김영수

김 완 김원국 김원중 김원화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국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성기 박성국 박영태 박종현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배 문

박찬민 박태성 박홍균 배기

박남인 배승웅 배호현 배종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병택

송영태 송우신 송일식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삼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환

안종민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태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우영로 우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영준 윤영주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영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근 이영태 이재호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영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준 이화영 이희주

임광준 장 광 장양희 장영준

전구영 전정자 정강무 정대서

전도영 정만규 정보원 정보원

정승중 정영열 정영호 정재택

정재현 정현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수일

이상식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전영무 최승재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승진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준길 최희영 권무욱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복진

한양희 한종태 한장혁 한형식

함광수 함한호 허광수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욱

황은우 황희서 황재규

● 사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의 강태욱 강종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범 고아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오습 곽오혁

곽자영 권순형 권오승 권오학

임병수 임성배 임정열 임채남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규환 장문석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장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병호 정상기

정석순 정영택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영화

정일영 정제배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정우진 정민준 최민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규 주성대 주재량

진중규 차준근 최민준 최희환

최병현 최성수 조성현 유은혜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성

윤진영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예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만지

조영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근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이인용 이인영 이자택 이자준

이정훈 이태열 임 훈

장경식 장규환 장문석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장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병호 정상기

정석순 정영택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영화

정일영 정제배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정우진 정민준 최민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유은혜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성

윤진영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예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만지

조영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근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이인용 이인영 이자택 이자준

이정훈 이태열 임 훈

장경식 장규환 장문석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장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병호 정상기

정석순 정영택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영화

정일영 정제배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정우진 정민준 최민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유은혜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성

윤진영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예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만지

조영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근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이인용 이인영 이자택 이자준

이정훈 이태열 임 훈

장경식 장규환 장문석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장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병호 정상기

정석순 정영택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영화

정일영 정제배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정우진 정민준 최민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유은혜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성

윤진영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예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만지

조영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근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이인용 이인영 이자택 이자준

이정훈 이태열 임 훈

장경식 장규환 장문석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장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병호 정상기

정석순 정영택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영화

정일영 정제배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정우진 정민준 최민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유은혜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성

윤진영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예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만지

조영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근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이인용 이인영 이자택 이자준

이정훈 이태열 임 훈

장경식 장규환 장문석 장문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판타지 콘텐츠

윙페더 사가

fondant 독점 공개

파트1

12월 25일

파트2

1월 1일

<나니아 연대기>를 잇는 초대형 기독교 판타지
희생과 구원, 도전과 용기가 있는 복음적 메시지

12월 25일, 풍당에서 '우리말 더빙판'을 최초 공개합니다

